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

- 濟州 地域 新聞의 外國(來)語 誤·濫用 -

許 椿*

目 次

I. 序 論	III. 結 論
II. 本 論	參 考 文 獻

I. 序 論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言衆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번 외쳐도 언론에서 쓰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나 표현, 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우리말을 가르치고 다듬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도 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그릇된 표현은 우리말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교열부가 축소 또는 폐지된 데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써야 하고 지면 편집에서 字數와 여백까지 고려해야 하고 讀易性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말의 체계가 어렵다고 해서 허물을 덮을 수는 없다.

언론 본래의 사명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평(해설)을 통한 여론의 반영과 유도에 있다고 보면 글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글이 의사 소통만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에 비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해 갈수록 신뢰성이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신문은, 적어도 우리말글에 서는, 국민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이니 책임이 더 무겁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같이 검토하는 일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방송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 사전마다 제각각인 발음 표기 문제, ‘표준 발음법’의 보완점 등을 고찰한 바 있다¹⁾. 이어서 제주 지역의 일간 신문에서 오용이 잦은 말 몇 가지와 일어의 잔재, 영어식 단어와 관용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검토했는데,²⁾ 이제 외국(래)어 오·남용 문제를 논의한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문장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미룬다.

대비를 위해 전국지, 다른 지역의 신문, 대학 신문, 잡지, 방송, 광고 등의 예를 먼저 보이고, 되도록 제주 지역 방송을 많이 보이되, 흔히 틀리는 몇 말은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든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이 제주 지역의 언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언론의 풍조를 생각 없이 따라 하지 말자는 의도에서다.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교열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뜻이 있기도 하다.

제주의 신문을 고루 예시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모든 신문을 정기적으

1)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2) 許椿,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

로 보지 못한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기사 본문 뿐 아니라 제목(이른바 헤드라인(head-line))을 많이 예시한 것은, 제목은 바로 눈에 띄는 일종의 포장이라 기사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명비판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첫 자음)만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한두 신문 외에는 편집자가 명기되지 않으므로 제목을 예시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우리말에 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규범적인 표기를 전제로 하고 검토하되, 쟁점이 있으면 가다급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글의 성격상 이론적인 논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어와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 本 論

오랑캐의 침입을 경계하는 말인 ‘天高馬肥’나 콜레라의 중국식 표기인 ‘호열랄(虎列刺)’처럼, 잘못으로 뜻과 표기(호열자(虎列刺))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굳은 것을 굳이 바로잡으려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 ‘심수(深圳)’를 아예 ‘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어법적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중딩, 고딩, 은따, 넷맹, 컴맹, 번섹, 컴섹, 컴시인’ 같은 말이나 ‘虛費(浪費), 劫姦(強姦)’³⁾을 ‘과소비, 성폭행(때로는 (성)추행)’이라 하는 예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만 뜻의 왜곡과 변질은 늘 경계해야 하고, 언론 매체는 이런 말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고수부지(高水敷地), 노견(路肩), 인터체인지(interchange)’를 ‘둔치, 갓길, 나들목’으로 바꾸어 정착 단계에 이르게 한 데는 언론의 힘이 크다. 그러나 ‘다람쥐(마우스), 셈틀(컴퓨터), 무른모(s/w)’ 같은 말은 아직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자국어의 뜻이나 발음을 따라 ‘컴퓨터’를 ‘电脑(电子计

3) () 안은 일본식 한자어임.

算机), '엘리베이터(elevator)'를 '电梯(升降机)', '서울'을 '汉城'이라고 하는 중국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일어의 잔재를 씻는 데는 물론이지만, 외국(래)어를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도 언론이 해당 학회와 연계해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⁴⁾.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나, 여기에서는 이 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검토한다. 표기 원칙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관용 표기와 차이가 많은 점 또한 혼란스럽다. 현존 국어 사전에는 '버스(bus)'('빠스'는 '버스'의 비표준어), 커피(coffee), 껌(gum)'을 바른 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껌'을 인정한다면 '빠스'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버스'를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외래어 표기법(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이미 굳어진 말'을 가능한 한 명확히 제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래어 표기에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공공성을 띤, 언론에서는 외래어 표기와 이에 따른 발음을 표준(표기)대로 해야 할 것이다.

외국(래)어의 남용 또한 큰 문제다. "기분이 업(up) 되었다."는 등 "경영 마인드(mind)가 뛰어나다."는 등 이상한 외국어를 쓴 말을 흔히 듣는다. 더구나 방송에서 "(손님에게 호스트(host)가 초이스(choice)되려고 ---"(00.3.19. MBC TV⁵⁾ '시사 매거진 2580' ○ 기자, "--- 샤프(sharp)한 글이나, --- 리스크(risk)가 있지 않나 ---"(01.11.13. MBC TV '행복한 책 읽기' ○ 교수(남)) 같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외국(래)어를 쓰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 대신 '팩트(fact)'(00.9.28.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들 중)라고 해야 더 유식해 보이고 뜻 전달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듯하다. "--- 아주 미스터리칼(mysterical(?))한(스러운(?)) ---"(01.1.4. K1TV '아침 마

4) '서론, 결론'을 포함, 여기까지는 '주 2)(2002a)'를 바탕으로 한다.

5) 약자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편의상 로마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연도는 뒷부분만 줄여서 표기하고, 프로그램이 연속될 경우 자정을 넘겼어도 그 전날로 하였다. 필요시 10분 단위의 방송 시간과 진행자의 성별을 밝혔다. TV 자막을 제외한 방송 인용은 " "을 하였다.

당' 〇 공동 진행자(남))에서는, 외국어를 그것도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쓴, 오용이라고 하기도 힘든, 보기 드문 예를 본다. 심지어 은어도 이상한 로마자(영어)를 쓴다. 이를테면, '배 제라'를 'BJR'로 표현하는 식이다. 'DJ, TJ, YS'식의 英字 이름 표기(DJ·YS 회동 이후(00.5.11. 조선 14면 7 기자 제목)⁶⁾도 시정해야 할 이상한 풍조이다. '건전한 러브'와 '러브행위'를 구별해서 말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지는 상황이다⁷⁾. '88플러스(Plus), 88디럭스(Deluxe), 88라이트(light), 88골드(Gold), 88멘솔(menthol), 엑스포(EXPO), 오마 샤리프(OMA SHARIF), 글로리(GLORY), 심플(Simple), 디스(플러스)(THIS (Plus)), 라일락(멘솔)(lilac (menthol)), 콤팩트(COMPACT), 겐투(Get 2), 에세(ESSE), 리치(RICH), (타임리스) 타임((timeless) time), 마운트 클래스(MOUNT CLASS), 시마(cima)' 등의 외국어 또는 로마자로 된, 뜻도 아리송한, 묘한 이름의 담배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설령 우리나라 담배가 모두 수출용이라 해도 이런 이름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외국(래)어의 남용은 자연히 오용을 수반한다. '스트로(straw)'를 '스트롱'이라 하거나 '스프링클러(sprinkler)'를 '스프링쿨러'라 하는 일을 가끔 본다. 빨대는 세계 빨아들이는 것이고 撒水는 찬물로만 한다는 뜻인가? "--- 상당히 넌센스(nonsense)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00.5.12. SBS TV '토요스페셜-아름다운 성' 8 공동 진행자(남)),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스피드(speed)하게 시작하라!"(00.10.3. 문화 8 출판사 광고)에서는 우리말과 외래어의 합성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여준다. '넌센스'가 '난센스'임은 차치하고라도, '난센스하다'가 옳은 말인가? 스피드(speed)하게'인가 '스피디(speedy)하게'인가? '아이러니(irony)한' 것인가 '아이러니칼(ironical)한' 것인가?

홀이름씨는 소리대로 적음이 온 세계의 관레이기에 중국의 서울은 '북경'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적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글로만

6) 모든 인용은 원문대로이며, 바뀌는 문장과 단락은 /와 //로, 원문의 줄임표는 …로, 필자가 줄인 부분은 ---로 표시한다. 신문명의 '-일보, -신문' 등은 생략하고, 기사의 면수와 제목을 밝힌다.

7) cf. 00.12.8. 동아 '500자 세상'.

적을 것을 한자로 적으니 ‘波’가 폴란드를 가리키고 ‘壤地利’가 오스트리아를 가리키고 ‘아메리카’가 美國으로 둔갑한다. ‘소련’이 ‘蘇聯’이 되어 또다시 ‘소련’이 되는가⁸⁾. ‘佛蘭西’의 중국식 발음은 원음에 가깝지만 이를 한글로만 ‘불란서’라고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현행 ‘현지 원음주의’는 정말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 표기 방법이다.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 방법과 함께, 지금의 표기 방법을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파리(Paris)’를 영어권에서 [패리스]라고 읽고, ‘찰스(Charles)’를 불어권에서 [샤를르]라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일본의 ‘슈칸분순(週刊文春)’이 9일자 최근호에서 보도했다.(01.5.10. 문화 30면 도쿄=聯合 제목:“日 추방인물 김정남 확실/김정일 허가없이 日방문 불가능 했을 것”)” 같은 표기는 재고해야 한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영문자 표기법’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이지만,⁹⁾ 어느 외국인이든지 그들 나라의 체계대로 읽어서 원음과 비슷한 발음이 나오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와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의 로마자 표기 체계를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걸 따로 기억해서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일 또한 앞뒤가 바뀐 것이고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일이니, 외국어 중 특히 세계 공통어라 할 수 있는 영어의 발음에 중점을 두고 표기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음주의 원칙과 한자어의 관계, 로마자 표기와 실제 발음의 일치 정도, 로마자와 英字의 관계 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여기에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혼란만 주니 줄이지만, 새로 정한 상표(호)도 조항을 따르지 않는 실정이니 ‘규정 따로 말 따로’인 형편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姓의 로마자 표기 방법은 차치하고, 이름 표기 방법을 잠깐 논의하겠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7. 개정)’에 따르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제3장 제4항). 그러나, 무지에서 오는 혼란¹⁰⁾과는 별개로, 예전의 조항대로 쓴 로마자 성명 표기는

8) 김영환, “이름을 한글로 적기”, 『한글 새소식』 232호, 한글학회, 1991.12. 7쪽.

9) 김광해, “새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의 대안”(00.8.3. 문화)

이미 고정되어 알려졌기 때문에 상당한 혼동을 준다. 물론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제3장 제7항).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지 않는 관용 서류에 대한 것이다. 관공서에서도 표기법에 따른다고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적어도 인명 등은 종래부터 써 온 표기를 존중해야 한다.

‘I ♥ KUKAK’(00.10.10. MBC TV ‘퓨전 콘서트’ 자막)처럼, 무엇 때문에 멸절한 우리말을 아무 의미 없이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 표기를 하는지, 왜 이런 우스운 걸머티 들었는지 안타깝다. 그나마 ‘I ♥ GUGAK’이라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다. 신문 또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S&P’(‘SMILE&POLITICS’란다.)(00.12.26. 동아 A5면) 같은 제목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시사 상식’ 위에 ‘SISASANGSIK’이라고 쓰니(00.5.16. 제대 630호 6면), ‘SISASANGSIK’의 뜻이 ‘시사 상식’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아무 의미도 없이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적는 일은 ‘영어중독증’ 아니면 ‘걸머티’이다¹¹⁾.

외국(래)어를 알맞은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꾸준히 해야 하고 이의 보급 또한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제 눈에 띄는 말을 예시한다.

① 일반적인 외국(래)어 한글 표기 오류:표기 오류는, TV 자막이 특히 심하지만, 신문에서도 종종 보인다. 그릇된 표기는 자연히 틀린 발음을 유도한다. 외래어 표기법이 까다롭고 치밀하지 못한 점도 있으며 관용 표기와 차이가 많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좀더 세심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얼추 들어보아도 ‘골덴 자켓(corded velveteen jacket)→코르덴 재킷, 나레이션(narration)→내레이션, 넌센스(nonsense)→난센스, 데이빗(David)→데이비드, 데이타(data)→데이터, 드라이 크리닝(dry cleaning)→드라이 클리닝, 디쉬(dish)→디시, 레즈비언(lesbian)→레스비언, 레포트(report)→리포트, 레저(leisure)→레저, 로봇트(robot)→로봇, 로손(lotion)→

10) Cf. 01.9.27. 동아 A19면 ‘문화’ ㄱ 기자 제목:외국인도 헛갈리는 英文 명함.

11) Cf. 주 1)(2001b)에서 외래어 표기와 발음, 현지원음주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검토했으니 참고 바란다.

로선, 로켓(rocket)→로켓, 로타리(rotary)→로터리, 록앤롤(rock'n'roll)→로큰롤, 루즈(프 rouge)→루주, 리더십(leadership)→리더십,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리듬 앤드 블루스, 리쿠르트(recruit)→리크루트, 마일즈(miles)→마일스, 마사지(massage)→마사지, 메카니즘(mechanism)→메커니즘, 미세스(Mrs)→미시즈, 미스테리(mystery)→미스터리, 미시건(Michigan)→미시간, 바리케이트(barricade)→바리케이드, 발란스(balance)→밸런스, 밧데리(battery)→배터리, 배팅(betting)→베팅, 보스턴(Boston)→보스턴, 브로우치(brooch)→브로치, 보스턴(Boston)→보스턴, 브릿지(bridge)→브리지, 블록(bloc, block)→블록, 비지니스(business)→비즈니스, 파리(프 Paris)→파리, 색서폰(saxophone)→색소폰, 셔츠(shirts)→셔츠, 슈퍼마켓(supermarket)→슈퍼마켓, 스카웃(scout)→스카우트, 스탠포드(Stanford)→스탠퍼드, 스폰지(sponge)→스펀지, 스프(soup)→수프, 스프링클러(sprinkler)→스프링클러, 슬(스)라브(slab)→슬래브, 시삽(sysop)→시삽, 신나(thinner)→시너, 쉐(센)타(center)→센터, 아취(arch)→아치, 아틀란타(Atlanta)→애틀랜타, 알라스카(Alaska)→알래스카, 알콜(alcohol)→알코올, 액센트(accent)→악센트, 앙콜(encore)→앙코르, 워크샵(workshop)→워크숍, 윈도우(window)→윈도, 인디애나(Indiana)→인디애나, 잭 나이프(jackknife)→잭 나이프, 주스(juice)→주스, 카운셀러(counselor)→카운슬러, 칼라(color)→컬러, 콤플렉스(complex)→콤플렉스, 케익(cake)→케이크, 코메디(comedy)→코미디, 쿠폰(coupon)→쿠폰, 테이프(tape)→테이프, 텔리마케팅(telemarketing)→텔레마케팅, 트럼본(trombone)→트롬본, 판넬(panel)→패널, 팜플렛(pamphlet)→팸플릿, 플랫폼(platform)→플랫폼, 헬로우(hello)→헬로, 호스테스(hostess)→호스티스, 홀몬(도 Hormon)→호르몬' 등 너무도 많다. '스텐(stain(less steel))→스테인레스 스틸, 액셀(accel(erator))→액셀러레이터'는 일어식 표기를 고친 것이다.

신창원 검거 '쓰리캡스'(99.7.17. 조선 ○ 기자 제목:"申 본 순간/목숨걸어" 부제, '쓰리캡스'도 우스운 말이지만 그나마 '스리 캡스'라야 한다. '스릴(thrill)'을 상기해 보라.)

바하//“바흐, 바하”(99.12.22.23:40. MBC TV ‘20세기 한국의 인물들’ 자막//00.7.29.20:40 K1R(프로그램명 미상) 출연자 ㅈ 기자(ㄱ 신문 연예부), ‘바흐(J.S.Bach)’가 맞다.)

연봉 2억 셀러리맨서 할인쿠폰 사업가 변신(99.12.28. 조선 ㅈ 기자 제목, ‘쿠폰(coupon)’이 맞다.)

“바흐 음악제” 새천년 광파레”(00.1.6. 조선 ㄱ 기자 제목, ‘바흐’는 맞으나 ‘광파레’는 ‘광파르(fanfare)’라야 한다.)

“--- 팩스 아메리카의 위상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00.11.11. K1TV 뉴스9 뉴욕=ㅇ 기자, ‘팩스 아메리카나(Pax[L=peace] Americana)’가 옳다.)

알고리즘이란 문제의 답을 체계적으로 구하는 수학적 과정이다.(01.2.1. 동아 ㅇ 동아사이언스 기자 제목:수학 난제 ‘외관원 순회’/국내 과학자 ‘해법’ 찾다’, 연산 방식인 ‘algorithm’은 ‘앨거리듬’이고 아라비아의 숫자 계산법인 ‘algorism’은 ‘앨거리즘’이다.)

캐치프레이즈의 誤用//“제주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합니다.”(01.4.1. 「대한언론인회보」(大韓言論人會 발행) 제181호(14면) ㄱ 논설위원 ‘나의 제언’ 제목//01.11.6. 제대 657호 8면 ‘기획’ 광고 문안,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광고나 선전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대중의 심리를 잘 포착하는 기발한 문구)’라야 한다.)

“주로 침대나 쇼파 ---”//쇼파 공장 화재(01.4.19. K1TV 뉴스9 ㅇ 기자(여)//01.12.6.12:00 MBC TV 뉴스 자막, ‘쇼파(sofa)’이다.)

율리시즈는 사이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01.5.9. 동아 A6면 ‘오피니언’의 ‘水曜 프리즘’ ㄱ 문학평론가 제목:‘호모 텔레포니쿠스’, ‘율리시스(Ulysses)’가 옳다.)

정발연은 ---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다.(01.5.30. 세계 5면 ㅈ 기자 제목:격변기마다 整風이..., ‘스포트라이트(spotlight)’라야 한다.)

“나레이션이나 음악 없이 ---”(01.6.19.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아나운서))

청호나이스/“오너쉽서비스”(01.7.16. 중앙 20면 광고)

“--- 리더쉽을 표현할 수 있는 ---”(01.9.20. K1TV ‘세상은 넓다’ 자막)

<파리넬리>그후6년/더 자극적인 음악적 오르가즘(01.11.9. 동아 C10면 영화 ‘왕의 춤’ 광고 문안, ‘오르가슴(orgasme)’이 옳다.)

--- 년센스예요.(01.11.11.22:1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자막)

--- 또는 간이 스낵 정도는 --- (01.11.13. 제대 658호 2면 '보도'의 '사설' 제목:학내 복지를 위한 제언, '스낵(snack)'이 옳다.)

--- 화려한 쇼맨십(?)을 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 (01.11.13. 제대 658호 8면 '기획' ㅎ 기자 제목:자신에 맞는 칵테일을 고르는 것이 중요, '쇼맨십(showmanship)'이다.)

“--- 탈렌트 황수정 씨의 마약 복용---”(01.11.14.21:00 K1TV 뉴스9 주요 뉴스 예고 아나운서(남)와 ㄱ 공동 앵커(여), 이를 보도한 ㄱ 기자(남)는 '탈렌트(talent)'로 옳게 말했다.)

악세서리(01.12.24.09:50 MBC TV '손범수 전유성의 모닝 카페'의 '부부 성공 시대' 자막과 ㅅ·ㄱ 공동 진행자(남, 아나운서·개그맨12), '액세서리(accessory)'가 옳다)

어머니자전거단 해안선따라 환경캠페인(01.11.16. 제민 12면 'Economy 경제' ㄱ 기자 사진 설명 제목, '캠페인(campaign)'이다.)

황제 스포츠맛사지 클럽(01.11.17. 제민 21면 'TV 가이드' 광고)

② 신문의 각면 제목과 방송의 프로그램명:신문의 각면 제목을 외국어로 그것도 아예 로마자(영자) 표기로 적는 것은 걸맞이다. 외국어(영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기도 한다.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고 세태를 반영해야 하는 점도 있으나, 곱고 바른 우리말을 쓰도록 선도해야 할 신문은 이를 자제해야 한다. 덧붙여, 요즘의 대중 가요에 뜻도 불확실하고 앞뒤 문맥과 연결되지도 않는 외국어를 몇 마디씩 넣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려운 걸맞이다.

사람들(01.8.13. 조선 19면, '피플'이나 'people'이 아니라 반가웠다.)

토크박스/토크잉어바웃(01.4. K2TV '서세원 쇼' 자막과 ㅅ 진행자(남, 개그맨) 등, '토크 박스(talking box)'도 어색한데 '토크박스'라니 너무나 어

12) 코미디언(comedian), 익살꾼을 말하는 '개그맨(gagman)'은 틀린 영어이지만(“--- 'gagman'이라고 하면 '입에 재갈을 문 사람' 정도밖에는 아무 뜻도 없다. 그것도 'gagedman'이라고 해야만 그렇게 된다.”(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16쪽)), '코미디언'과 구분하여 쓰는 듯하고 이미 굳어진 상황인 데다 딱히 대치할 말이 적당하지 않아서 우선 그대로 쓴다.

설프다. 게다가 구태여 ‘토크 어바우트(talking about)’ 같은 외국어를 쓸 상황도 아니다.)

뉴스 와이드, 피자 아침(01.4.(?) MBC TV 프로그램명, ‘뉴스 와이드(news wide)’도 뜻이 통하지 않는 造語이고 ‘피자’는 ‘PD+기자’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란다.)

S&P/SMILE&POLITICS//S&P에 비친 2000년 정치’(00.12.26. 동아 A5면과 口 기자 제목), 투데이(01.7.12. 동아 A23면), Metro 리빙(01.11.19. 동아 A2면), You & Me/영화(01.12.7. 동아 C12면), 스타 줌업(01.8.2. 주간 동아 295호 72면)

팝컬처(01.6.21. 문화 19면), Biz/경제(01.8.18. 문화 10면), 樂락카페(01.8.18. 문화 13면)

Go/Culture/판(01.8.20. 중앙 48면), Metrowide 메트로 와이드(01.10.26. 중앙 20면), 슈퍼 채테크/jMoney(01.10.31. 중앙 35면), ON TV(01.11.23. 중앙 45면), 홈&쿡(01.11.23. 중앙 53면)

Hi Biz//이슈 인사이드(01.11.8. 한국 11면)

Feature/특집(01.10.4. 전북 7면, ‘feature(=신문의 특집 기사나 特作品)’의 뜻을 정확히 아는 독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Zoom in(01.11.6. 제대 657호 5면 ‘문화’)

Biz&Money(01.9.18. 제주 7면)

렛츠고(01.11.16. 제민(e터치) 26면)

③ 상품명, 상호, 광고, 구호 등: ‘Hynix(구 현대전자)’를 ‘high nix(nix는 속어로 zero 또는 no의 뜻)’로 이해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크게 거부’해서 회사 이윤은 남는 게 없다는 인상을 준다면¹³⁾ 좋을 리가 없다. 醫師 曠 씨가 개원하면서 ‘Quack’s Clinic(돌팔이 진료소)’이라는 간판을 다는 격이다. 외국어-영어 사용의 신중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애니콜(anycall)//“삼성 애니콜”(99.7.20. 동아 사社 휴대 전화 광고 문안//99.11.1. MBC TV 선전, ‘애니콜(AnyCall)’이 고 유명사이기는 하지만 영어를 병기했으니 ‘애니콜’이 적확하다.)

13) Cf. 조화유, 01.12.7. 동아 A7면 ‘독자의 편지’ 제목: 하이닉스는 ‘거부’의 의미… 영어로 상호 지을때 조심

당신은 메인입니다(01.11.18. K이동통신 광고 문안, 밑에 'Main'이라고 썼는데, 그냥 'the main(주요부(分), 주요한 점)'을 말한 것인지,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란 뜻인지, 당신은 회사의 주요 고객이란 뜻인지 모호하다. 여하튼 그냥 '메인'이라고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뉴EF쏘나타(자동차 상품명, 자동차 이름을 로마자로 붙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나타(sonata)'가 아닌 '쏘나타'입은 이해하기 힘들다.)

竹 de 豚(제주의 음식점 상호, '대나무 속 돼지'라는 뜻이라는데,¹⁴⁾ 商號지만 외국어를 이상하게 오·남용했다.)

Buy Korea(하투신 광고 문안, 'Buy Korea'는 한국이란 나라를 팔겠다는 뜻이니 구매여 쓰려면 'Buy Korean'이라야 옳다.)

'Made in 20'/Made in Earth(T 휴대 전화//컴퓨터 회사 광고 문안, 영터리 영어이다. '20대들이 만든 것'이라면 'Made by 20's', '20대를 위한 것'이라면 'Made for 20's'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지구에서 만들었다면 'Made on Earth'가 낫겠지만 그 의미 전달은 실패한다. 전 지구를 향해 판매하겠다는 뜻일까?)¹⁵⁾

SENSE/센스(고추장 상표, '신세대 고추장'은 영어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나마 '센스'라야 한다.)

You First(하증권 광고 문안, 'After You'라야 옳다.)

④ 외국(래)어+우리말(조사, 어미 등): '아이러니(irony)한/아이러니칼(ironical)한'에 맞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전자 우편 주소의 @를 이르는 말이 나라마다 다른 것(생쥐(중국), 꼬끼리 코(덴마크), 원숭이 꼬리(네덜란드(?))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는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와는 다르니 우리말다운 기준을 세워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델리키트(delicate)하다', '리드미컬(rhythmical)하다', '스피디(speedy)하다',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헨섬(handsome)하다'처럼 쓰이고 있으니, '외국어(형용사)+하다'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매여 외국어를 쓸 까닭이 없다. 위의 말들은 각각 '미묘하다/섬세

14) Cf. 01.11.6. 제대 657호 5면 '문화'의 'Zoom in' ○ 기사 제목:대나무 속 이야기, '대나무 속 돼지'라면 그나마 '豚 de 竹'이 좋지 않은가?

15) Cf. 01.11.12. 한국 '입귀열의 현지어 정통영어'

하다, 율동적이다, 빠르다, 역설적이다/모순적이다, 말쑥하다' 정도면 족하다. '난센스(nonsense)하다', '임팩트(impact)하다' 같은 말도 보이니(들리나) 좀 어색하다.

“--- 상당히 난센스(nonsense)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00.5.12. SBS TV ‘토요쇼페셜-아름다운 성’ 卞 공동 진행자(남), ‘난센스’는 ‘난센스’의 잘못이다.)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스피드(speed)하게 시작하라!”(00.10.3. 문화 사 출판사 광고)

“--- 아주 미스테리칼(mysterical(?))한(스러운(?)) ---”(01.1.4. K1TV ‘아침 마당’ 〇 공동 진행자(남), ‘mysterical’은 없는 말이니 ‘mysterious’라야 한다.)

지금의 논어해석 열풍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율이 바꿨던 현상이기도 하다.(01.4.30. 교수 제201호 12면 ‘쟁점’ 〇 기자 제목:‘도율 논어’를 보는 안팎의 시선)

⑤ 틀린 외국(래)어 사용 문제:‘전화 박스(box)→전화 부스(booth)’라야 하지만, ‘핸드폰(hand phone), 핸드폰(handy phone), 휴대폰(携帶phone)’을 굳이 ‘셀(룰러) 폰(cell(ular) phone), 모바일 폰(mobile phone)’이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휴대 전화’가 바람직하지만, 이미 굳은 ‘핸드폰’을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겠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상황도 참고할 만하다.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른바 Janglish(Japlish)와도 연관되는, ‘Konglish’라 할 외국(래)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고치거나 맞는 외국어를 써야 할 것이다. ‘decoration cake→fancy cake, my car→my own car, mansion→apartment (house), bed town→bedroom suburbs(dormitory suburbs), short cut→short hair, owner-driver→motoris, handle→wheel’ 등과 같은 말이다.

‘정종(마사무네(正宗)), 라이방(레이밴(Ray Ban)), 호치키스(Hotchkiss),¹⁶⁾

16) Cf. 주 2)(2002c)

제록스(Xerox) 같이 상품명에서 유래한 말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또 ‘스티로폼(도 Styropor)¹⁷⁾이나 ‘스티로폼(Styrofoam)¹⁸⁾은 ‘發泡 스티롤(도 Styrol)(스티렌(styrene)) 樹脂/폴리스티렌(polystyrene)으로 만든 발포 플라스틱’의 상표명이니¹⁹⁾ ‘發泡 스티롤(스티렌) (樹脂)’가 바람직하다.

⑥ 외국(래)어 남용: 좋은 우리말을 두고도 굳이 외국(래)어를 쓰는 현상은 이른바 지식인층에서 심한데, ‘사실, 要件’을 ‘팩트(fact), 팩터(factor)’라 하는 식이다. ‘조크(joke)’와 ‘농담, 우스갯소리’는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가? 특히 복식 용어는 더 심하다.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이 대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 그렇겠지만, 적당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먼저 복식 용어를 보이고 다른 말을 예시한다

졸업식때 뭘 입을까/밝은 색상의 터틀넥/스카프형 블라우스 무난//여대생들은 니렁스(무릎길이) 치마에 속단추가 있는 심플한 재킷이 기본이다. --- 남학생들은 스리 버튼의 싱글정장이 적합하며 브라운이나 와인 색 계통은 피하는 게 좋다. 셔츠는 슈트와 같은 계열의 유색 셔츠도 보기 좋다./고교생들도 졸업식날 교복을 입지 않으면 세미정장을 입는 게 보편

17)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1)의 표제어는 ‘스티로포르(도 Styropor)’이며 ‘스티롤’은 ‘슈티롤’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tyropor’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슈(스)티로포어[ft-/st-, st-/ft-]’이겠으니, 표제어가 혼란스럽다. 「옛센스 國語辭典」(이희승 편, 수정판 제2쇄)(민중서림, 1992)의 표제어는 ‘스티로폼(도 styropor)’이나, 로마자 표기는 오기이다.

이하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옛센스 國語辭典」(제5판, 전면개정판)(민중서림, 2001),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금성출판사, 1995), 「2000년 신어」(국립국어연구원, 2000) 등의 직접 인용 사전은,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민중」, 「금성」, 「신어」로 줄여 표시한다.

18) 「국어연구원」의 로마자 표기(styrofoam)는 오기인 듯하다.

19) 「국어연구원」에는 ‘스티로폼’은 상품명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있으나, 상표명이라고 설명한 사전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스티로폼(도 Styropor)’을 ‘스티로폼의 잘못’(「국어연구원」)이라고 풀이한 것은 재고해야 하겠다. 「한글학회」에는 ‘스티로폼’이 없다.

적인 추세.(01.2.15. 동아 A22면 ‘메트로 Metro’ ㄱ 기자 제목과 본문)

청재킷 입고 가을나들이 어때요//상대적으로 상의는 피트되게 입어주는 여성스러운 캐주얼이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01.8.24. 중앙 55면 ㄱ 여성중앙21 기자 제목과 본문)

탱크탑 핫팬츠 홀터넥 등 기본/카디건·스카프·두건과 함께 코디//짧은 반바지인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비롯 등을 드러내는 백리스, 러닝셔츠 행태의 탱크탑, 속살이 살짝살짝 비쳐나는 시스루등이 기본 아이템.(01.5.26. 한라 12면 ‘올 여름 패션’ ㄱ 기자 제목:폭염타고 과감해진 노출패션 ‘인기’ 중간 제목과 본문)

--- 이코노미스트들은 재벌 개혁의 초점이 빅딜에 맞춰지고 있는 것에 회의적인 모습이다.(99.1.4. 조선 2면 ‘기자수첩’ ㄱ 기자, ‘초점’은 ‘초점’이 맞다.)

그는 우리 사회의 집단무의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댔다.(99.11.24. 조선 〇 기자 심리학자 이부영 인터뷰 기사, 국어 사전엔 ‘메스(네 mes)를 가하다’가 관용어로 나오지만, ‘메스’는 ‘손질/수정/깎’ 등으로 순화할 말이다.)

(자카르타는) 아시아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인프라시설을 갖춘데다 서울에 비해 워낙 싼 물가수준, ---(01.2.7. 조선 13면 자카르타=ㅎ 기자 제목:한글간판숲… ‘印尼의 LA’, 게다가 ‘시설’은 불필요한 말이다. ‘기반 시설’ 정도면 충분하다.)

“---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단일품목 취급점)로서 차별화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01.5.1. 문화 10면 ㄴ 기자 제목:‘유통혁명’ 농민·소비자 이익 대변, (주)농협유통 ㄱ 사장의 말인데 설명을 붙여 다행이지만 굳이 외국어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본 팩트도 무시한 방송뉴스의 허술함(01.5.10. 동아 C5면 ‘박성희교수의 TV 읽기’ 제목)

밀리터리 마니아 “나 군인같아?”(01.7.2. 동아 B2면 사진 설명 제목 사진=〇 기자, ‘밀리터리(military)’를 단독으로 써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아마 군인과 유사한 복장 취향을 말하는 듯한데,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마니아(mania)’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매니아’가 아니라 다행이다²⁰⁾. 구태여 외국(래)어를 쓴다면 ‘밀리터리 룩 마니아(military look

20) ‘매니아’의 표기와 발음은 주 1)(2001b) 195쪽에서 검토했다. 그런데 이

mania)'일 것이나 '밀리터리 룩'은 군복 형태와 다른 뜻으로 쓰는 말이다(21).)

애니도 마서 '韓流열풍'(01.8.18. 문화 10면 'Biz/경제' ○ 기자 제목, '애니'는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줄인 말로 신세대에게는 일상어인지 모르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낯선 말이니 다른 말을 썼으면 하고, '애니' 밑에 다른 설명 두어 자 붙이면 좋겠다. '애니'는 '애니메이션(animation movie, animated feature)'을 근거 없이 임의로 줄인 말이다(22). 물론 아직 국어 사전에 오른 말이 아니다.)

주철환의/스타로지(01.9.17. 중앙 46면 'GO판//방송/연예'면의 제목, '스타로지'는 스타를 논한다는 뜻으로 스타(star)에다가 학(學)과 논(論)을 뜻하는 접미사 '-logy'를 붙여 만든 합성어라고 편집자는 설명하고 있다. '피자의 아침'처럼 자의적으로 만든 말이다.)

군데군데 끊기고 블라드·가로수 등 장애(01.10.4. 전북 6면 '기획' ○ 기자 편집=ㄱ 기자 제목:막대한 예산투자 비해 제기는 못해 부제, '블러드'가 최근의 산물이며 적당한 우리말이 아직 없는 까닭이겠으나, '블러드'를 그대로 쓰면 독자가 쉽게 알 수 없다.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bollard(=배를 매는 기둥, 도로나 잔디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박은 기둥)인데 '보호 기둥, 보호 말뚝'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더 적당한 우리말을 만들어(찾아) 보급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박지은 "feel이 오네"(01.11.17. 중앙 33면 '스포츠' ㅅ 기자 제목, 'feel'보다 'feeling'이 적합한 말이거나 굳이 영어로-그것도 철자까지- 쓸 까닭이 없는 말이다.)

"무빙 워크에 크게 다쳐 ---"(01.11.29.09:40 KITV 뉴스 ㅂ 아나운서 (여)와 보도 기자, 우리말로는 '자동 복도'이다.)

--- 도복을 입고 자세를 갖춰 앉은 폼이 제법 의젓하다.(01.11.16. 제민

때의 'mania'는 'maniac'이 정확한 용어이다('mania'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현상'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狂(사람)을 나타내는 말(buff, bug, whiz kid, wizzard 등)을 나쁜 뜻의 '狂人'이라는 의미로 말한다 해도 'maniac'이라야 한다 (주 12) 215~227쪽. passim).)

21) '밀리터리룩(military look)'은 '(명) 직선적 윤곽의 재킷과 몸에 꼭 끼는 스커트로 허리를 가늘게 조여 긴장감과 여성적인 감성을 표현한 패션 형태('신어')를 말한다.

22) 주 12) 462~465쪽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e터치) 26면 '렛츠고' 그 기자 제목:검도/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본다, '폼(form)'은 영어이고 우리말은 '폼'이다. '폼'은 동사 밑에 붙여 그 동작이나 됴됨이를 표하는 말이니, '생긴 폼이 사납다.'처럼 쓰인다.)

㉑ 외국(래)어 표기 혼란:

㉑ 게놈, 지놈(도 Genom, 영 genom(e)):생물이 생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한 쌍의 염색체를 이른다. 유전자라는 뜻의 '진(Gene)'과 전체 총합을 뜻하는 '옴니스'의 변형인 '옴(Ome)'의 합성어인 '게놈'도, '지놈'(영어식)으로 적는 신문(중앙)도 있다²³⁾. 국어 사전의 표제어는 '게놈'이다. 우리말로 '유전체(유전자+염색체)'면 되는데, 굳이 '게놈'이라 할 필요도 없다.

“지놈 다음엔 단백질 정체 규명”//“지놈”은 ‘유전체’로(01.2.23. 중앙 ○ 기자//△ 기자 제목)

지놈혁명 과신보다 급연·운동 더 중요//지놈혁명은 --- (01.4.6. 중앙 49면 정리=△ 기자·의사 제목:‘유전자 해독’ 만병통치 아니다 중간 제목과 본문)

㉒ 바기나, 버자이너(Vagina):‘Vagina(도, 膣)’는 영어 표기도 같은데, 국어 사전의 표제어는 ‘바기나’이다. 이미 굳은 말인데 굳이 영어식으로 표기할 까닭이 없다.

버자이너 모놀로그(The Vagina Monologue)(01.4.4. 문화 18면 ‘북 리뷰’ 리뷰=○ 기자 제목:‘여자의 性’ 누가 무엇을 짓밟나, 책 제목이다.)

㉓ 바이아그라, 비아그라(Viagra):‘Viagra’를 생산하는 파izer가 본디 독일에서 설립된 다국적 제약회사니까 문제의 약은 영어 발음을 따라 ‘바이아그라’라고 하든가 독일 이름인 ‘뵤에그라(Väegra)’²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새로운 한국 명칭을 눈에 보이는 글자대로 표기해 만들어서 사용한다²⁵⁾. 한동안 ‘바이아그라’와 혼용하다가

23) “‘지놈’ 아닌 ‘게놈’이 올바른 표기입니다”(01.2.19. 동아 ○ 기자 제목)를 참고 바란다.

24)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뵤에그라’임.

언론 매체에도 ‘비아그라’로 정착되었다. 왜 이 말만은 영어식 발음을 따르지 않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비아그라 ‘警報//그것도 문제지만 국내 임상시험 결과 한국인의 경우 심장마비 시력약화 등 비아그라 부작용이 미국인에 비해 최고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9.7.30. 동아 ‘횡설수설’ ㅈ 논설위원)

⑧ 약자 표기 문제:

Y2k(00.1.6. 조선 ㅈ 기자,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관행으로 인해 2000년이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혼란을 이르는 말인데, ‘Y2K’가 정확한 표기이다.)

신인 mc(00.4.8.00:00 MBC TV 신인 MC 모집 공고 자막, ‘mc’는 ‘m.c./MC/M.C.((the) M(m)aster[mistress] of C(c)eremonies)’가 옳다.)

⑨ 검토가 필요한 외국(래)어:

㉑ 파워(power):언론에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말이다. ‘電力, 動力’을 뜻하는 말인데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²⁵⁾ ‘Power Tie, Power Mint’처럼 ‘힘, 재력, 상류층’ 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니²⁷⁾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㉒ (퍼센트) 포인트(percent point)²⁸⁾:요즘 언론 매체에서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자주 보고 듣는다. ‘포인트(point)’를, 최근에는 일부 국어 사전이 ‘기준 주가 지수와 비교 주가 지수와 차를 세는 말(‘금성,)’ 또는 ‘득점이나 지수를 나타내는 단위(‘민중,)’로 풀이하고, ‘5포인트 하락하다.’ 같은 말을 예시했다. ‘신어’는 ‘[경] 물가나 주식 시세 따위에서의 ‘지표’를 이르는 말’이라 풀이하고, ‘삼성 매경 디지털 지수(SMDI)도 전일보다 14.98 포인트 오른 617.78로 급등했다. 16일 종합 주가 지수는 전일보다 18.10 포인트 오른 746.77에서 장을 끝마쳤다(00.5.17. 매일 경제 1

25) 주 12) 335쪽. passim.

26) Ibid., 688~692쪽.

27) Cf. 01.9.20. 한국. 주 15).

28) 주 1)(2001b) 198~199쪽에서 일부 검토했다.

면)’ 하는 예문을 보였다. 우리말이 꼭 외국어 용법을 따를 이유는 없으나, 굳이 ‘포인트’를 쓰려면 이처럼 써야 한다. 이로 볼 때도 ‘퍼센트 포인트’는 어색한 말이며, 그냥 ‘포인트’라 해야 뜻이 명확해진다. 우리말에서 “0.5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01.1.27.11:40. CBS R 뉴스), “---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01.2.15. 동아 A2면 사 기자)식의 표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군더더기 말이라고 생각한다. 활자 크기, 상승(하강) 폭이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9.5점’을 ‘9점 5포인트’라고 하는 일도 있어 혼란하다. 또 운동 경기의 득점이나 시험(채점)의 점수는 ‘포인트’가 아닌 ‘점’이면 족하다.

“2퍼센트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00.10.7.09:35 K1TV 제주 뉴스 아나운서(남))

--- 예대금리차가 2.81%포인트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 2.57%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 (01.2.28. 문화 B 기자 제목:은행 대출금리 인하 인색)

생명보험업계는 --- 예정이율을 약 1.0%포인트 내릴 예정이다./예정이율을 1%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약 15% 오른다는 게 업계의 설명 (01.3.21. 동아 O 기자 제목:“이달 가기전에…” 종신보험 가입 폭증, ‘약 15% 오른다는’에는 ‘포인트’가 없는데,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Ⅲ. 結 論

언어는 단순한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정신)를 담는 그릇이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에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글을 사용해야 사회도 더 맑아진다고 믿는 필자는,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물로 우선 방송의 발음, 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 표준 발음법 보완에 대해 논술한 데 이어 제주 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틀리거나 어색한 우리말글과 일(영)어의 잔재를 검토한 바 있다. 계속해서 외국(래)어 오·남용 문제를

논의했는데, 제한된 지면 관계로 ‘譯語體, 非文·惡文, 문장의 호응, 문장 부호’ 등에 대해서는 별론하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보여도 또 들려도 괴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가 얼른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의하였다. 특정 언론 매체나 특정인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이니, 필자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는 상황은 우리말글을 더 어렵게 하지만, 언론 매체 종사자는 우리말글의 길잡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바른 우리말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말에는 무의식중에 쓰는 일어(의 찌꺼기)가 참으로 많은데, 일어의 잔재를 씻고 외국(래)어를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는 언론의 소임이 매우 크다. 이 자리에서 문인, 학자, 지식인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비판 정신을 지니고 문화를 창조·전달·응용하는 일은 바른 언어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본론에서 문인이나 학자의 예를 든 것은 이 때문이다.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 사용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교사의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도 당부한다. 덧붙여, 신문의 바른 우리말글을 위해 애쓰는 전국의 교열부 기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2000년 신어」, 2000.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大韓言論人會, 「대한언론인회보」 제181호(01. 4. 1.).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제8판), 금성출판사, 1988.
 운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초판 제4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국어대사전」(제2판 제1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뉴에이스 英韓辭典」, 금성출판사, 1993.
 이희승 편,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2쇄), 민중서림, 1992.
 池明烈·池權 편, 「現代獨韓辭典」, 教學社, 1997.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3판, 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림, 1999.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5판, 전면개정판), 민중서림, 2001.
- 편집국 편, 「뉴우 월드 英韓大辭典」, 시사영어사, 1973.
- 편집국 편, 「옛센스 英韓辭典」, 민중서림, 1999.
- 편찬위 편, 「英韓大辭典」, 시사영어사, 1995.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許亨根 편, 「獨韓辭典」, 민중서림, 1999.
- 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전북·주간동아·제대신문·KBS TV(Radio)·MBC TV·SBS TV·CBS Radio·제민·제주·한라 등.

- 김광해, “새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의 대안”(00.8.3. 문화)
- 김영환, “이름을 한글로 적기”, 「한글 새소식」, 232호, 한글학회, 1991.12.
-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 임귀열, ‘임귀열의 현지영어 정통영어’(01.9.20., 0111.12. 한국)
- 조화유, “하이닉스는 ‘거부’의 의미… 영어로 상호 지을때 조심을”(01.12.7. 동아 A7면 ‘독자의 편지’)
-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